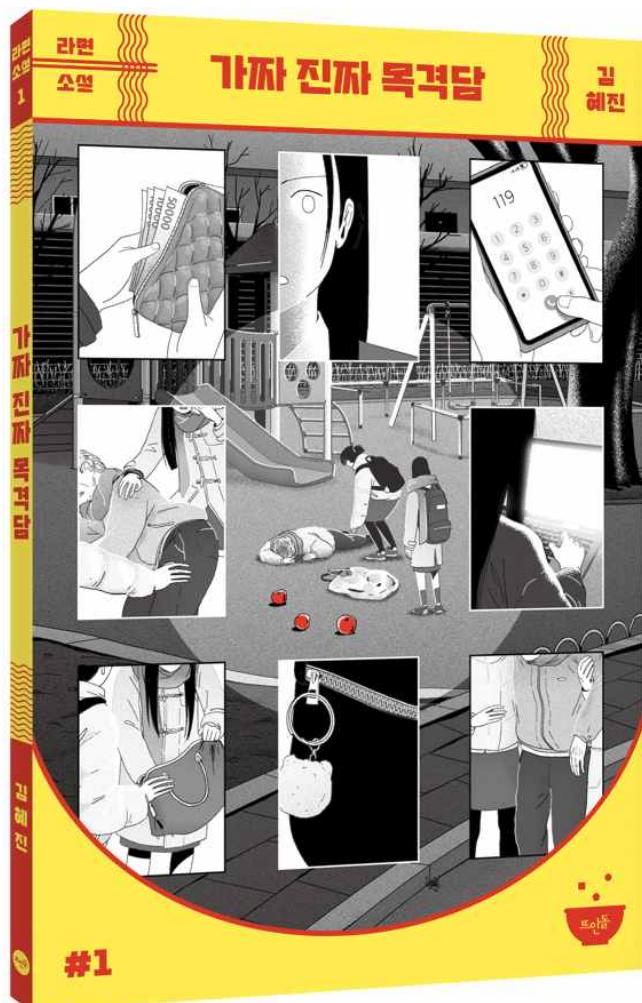


청소년 독서 수업 지도안(학생용)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가짜 진짜 목격담

김혜진 지음



주제어 : 하얀 거짓말, 진실, 우정, 반성

프인돌

| 책 소개 |

하얀 거짓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

교지 편집부인 재영은 좋은 이야기가 세상을 좋게 만든다는 신념으로 이른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를 지어내 익명 게시판에 올리는 게 취미다. 때론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심받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긴다. 그러던 어느 날 교지 편집부 회의에 재영이 지어내 SNS에 퍼트렸던 ‘OO중학교 할머니 사건’ 미담이 화두에 오른다. 취재 논의가 이어질수록 뜻밖의 진실이 드러나고, 재영은 고민에 빠진다. 진실이 무엇이든 하얀 거짓말로 덮어 두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굳이 파헤쳐야 할까? 동시에 재영이 그동안 만들어 둔 하얀 거짓말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라면소설 시리즈 첫 번째 작품 『가짜 진짜 목격담』은 『완벽한 사과는 없다』 『우리는 얼굴을 찾고 있어』 등으로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감정과 짙은 고민을 섬세하게 그려 온 김혜진 작가의 차기작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진정한 선의(善意)에 대한 물음을 다각도에서 던진다. 짧은 분량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가진 고민과 사연, 사건을 매우 촘촘하게 엮고 있어 페이지를 넘길수록 커지는 몰입감과 긴장감으로 손안에서 땀이 나는 걸 느낄 수 있다. 거짓말의 늪에 빠져 진실을 잊어버린 재영의 뒤를 쫓다 보면 일상 속에서 한두 번쯤 가볍게 할 만한 하얀 거짓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열릴 것이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독서 전 (독서 준비)	1차시: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책 표지 읽기책과 관련된 경험 떠올려 보기책 속의 영화
독서 중 (책 속으로)	2차시: 인물과 사건 파악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물의 의도와 배경인물 관계도사건 파악하기 3차시: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건의 발단인물 간의 갈등 파헤치기갈등을 통한 성장
독서 후 (토론과 논술, 독후 활동)	4차시: 적용하고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용 ‘삭제하기’토론하기 ‘하얀 거짓말은 해도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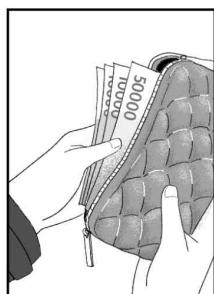
| 독서 전 1차시 | 예측하며 읽기 : 책 표지 읽기

[활동 1] 표지의 그림을 보고 사건을 짐작해 봅시다.

아래 그림에 사건의 순서를 적고 이야기를 예상해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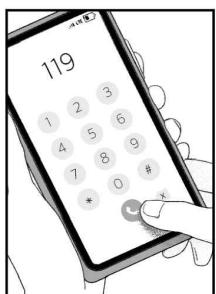
(1)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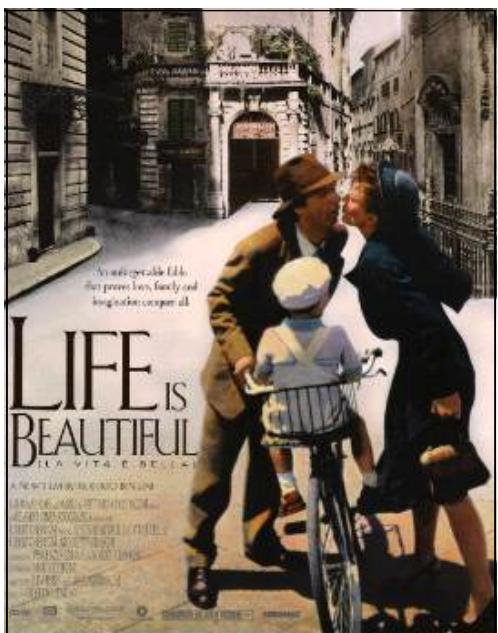
()

생각한 그림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써 보세요.

[활동 2] 내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훈훈했던 이야기나 흥행했던 이야기를 적어 봅시다.

	훈훈했던 이야기	흉흉했던 이야기
이야기 내용		
이야기에 대한 나의 마음		

[활동 3] 배경지식 쌓기_책 속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1997)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입니다. 독일의 나치에게 비참하게 학살당하던 시대의 유대인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너무나 귀여운 다섯 살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된 선한 마음의 아버지 '귀도'가 주인공입니다. 매일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는 수용소 안에서 지내면서도 아들의 동심을 지켜 주고 싶었던 그는 수용소 생활이 단체 경기라고 말하며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풀어 설명하여 아들을 웃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 그 와중에서도 아들의 동심을 지키며 보호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귀도'가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라면 나쁜 행동일까요?

배경지식 쌓기_심리 용어 '방어 기제'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따뜻한 집과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물질적인 조건의 충족뿐 아니라 심리적, 관계적 측면의 안정과 채워짐이 매우 중요한 존재다. 아니, 물질적 요건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의 방어 체계를 '방어 기제'라고 한다. 흔히 사용되는 방어 기제는 '부정(denial)'이다. 현실에 일어난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아예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투사', '행동화', '건강 염려증', '퇴행', '이타주의', '유머', '승화' 등도 방어기제이다.

방어 기제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와 성숙한 방어 기제로 나뉘는데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인지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어 기제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보고 자신이 심리적 죄책감이나 불안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독서 중 2차시 | 인물과 사건 파악하며 읽기

1. 아래 소설 내용을 참고할 때, 주인공 '서재영'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해 봅시다.

(가) 글을 고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고치기로 했다. 너무 자세하게 쓰면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어낸 이야기 같아진다. 진짜 목격담처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니까.

100%는 아니고 한 70... 아니, 80% 정도는 상상이다. (중략)

거짓말을 왜 하냐고? 거짓말은 나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상상을 약간 더한 '좋은' 이야기지.

내 목표는 뚜렷하다. 좋은 이야기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

바로 이거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동하는 대로 행동한다. 쓰레기가 많이 떨어진 곳은 점점 더 더러워진다. 거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누군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줍게 된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일은 바이럴이다. 좋은 행동 바이럴!

(나) 차라리 좋은 일을 지어내는 게 낫지. 나쁜 일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김선오, 너 그거 기억나지? 아우슈비츠 배경 영화. 1학년 때 학교에서 봤었잖아. 2차 대전 때 수용소에 아빠가 아이랑 갔었는데, 아이한테 연극인 것처럼 꾸미잖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거 다 가짜라고.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을 버텨 내잖아. 네 말대로라면 그 아빠가 거기서 애한테 우리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았겠냐? 세상이 이렇게 잔혹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 했겠냐고!"

끔찍한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테니 아빠는 아이에게 오색 빛깔 예쁘게 칠해진 색안경을 씌워 준 거다. 그러면 안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있겠지. 우리가 사는 현실도 비슷하다. 목숨까진 안 걸렸어도, 안 보는 게 더 나은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 (1) (가), (나) 글에서 재영이가 좋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유가 나타난 부분에 밑줄을 쳐 봅시다.

- (2) 윗글에서 밑줄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재영이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유를 정리해 적어 봅시다.

2. 재영이가 좋은 이야기를 지어내게 된 배경을 알아봅시다.

(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미국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제시한 인간 심리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어 방화나 폭력과 같은 범죄의 온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을 때 사람들이 그 지역이나 행동을 무질서가 용인되는 곳, 혹은 이미 버려진 곳으로 인식하여 더 큰 무질서로 변지는 현상을 뜻한다.

(나) 아빠는 엄마를 달래면서 나를 봤다. 얼른 아빠의 말에 동의해서 엄마의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었다. 일그러지는 얼굴을 겨우 펴고 말했다.

“언니도 엄마한테 미안해해요. 나한테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 꺽이나 그랬겠다!”

엄마는 코웃음 쳤지만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다. 이것 봐, 언니가 진짜 미안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좋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한다.

손댔다간 피투성이가 될 깨진 유리 조각들은 도로 붙여도 원래대로 복구될 가능성이 제로다. 그럼 그냥 부드러운 걸로, 천 같은 걸로 둘둘 감싸 버리면 된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유리 조각이 왜 깨졌는지까지 잊어버리게. 좋은 것만 보이게.

(다) 되도록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좋은 면만 보고 싶었다. 발이 푸푹 빠지는 모래밭인 걸 알아도, ‘우아! 하늘 좀 봐, 파랗다’ 하며 시선을 돌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중략) 생각을 안 하고 싶었다. 머리를 비우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와 선배들 이야기를 썼다. 좋은 이야기를 쓰고, 감동했다는 댓글을 봤다. 매일 좋은 장면을 찾아 해매고, 못 찾았기에 상상해서 썼다.

그렇게 내 주위에 담을 쌓고 바깥과 차단된 그 좁은 담 안을 알록달록하게 칠하자, 비로소 편해졌다. 그곳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내가 쓰는 이야기들은 담을 꾸미는 그림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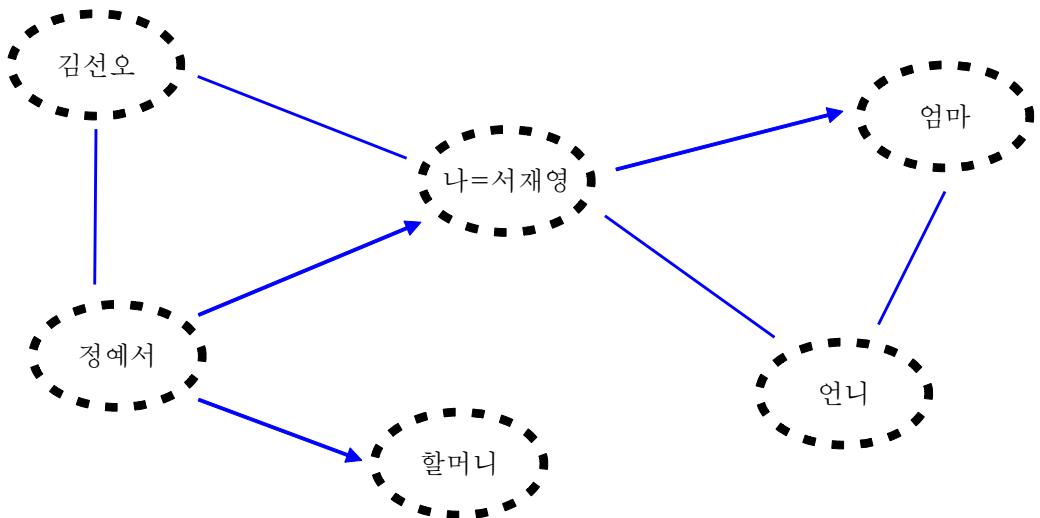
(1) 글 (가)-(다)의 상황 또는 지식이 재영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각각 정리해 봅시다.

(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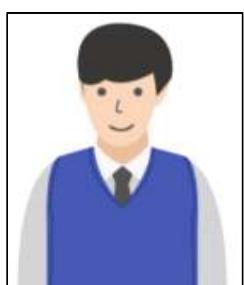
(나) _____

(다)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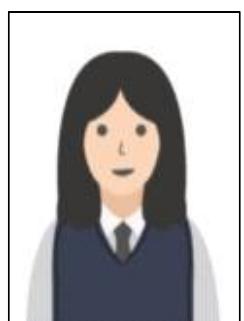
3. 소설 속 인물의 특성을 생각하여 인물 관계도를 그려 봅시다.



4. 소설 속 인물의 특징을 파악하여 인물 소개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이름	김선오
신분, 하는 일	
성격	
소설 속 역할	



이름	정예서
신분, 하는 일	
성격	
소설 속 역할	



이름	서민영
신분, 하는 일	
상황/성격	
소설 속 역할	

5. 교지 편집 회의 중 ‘우리의 3년’ 코너에서 문제가 된 사건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예서의 말을 중심으로 자세히 적어 봅시다. (20-21쪽, 28-29쪽)

6. 재영이와 친구들이 수집한 정보의 빈칸을 채우며 사건의 순서를 바로잡아 할머니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 (가) 상가에 가서 물어보다가 할머니가 쓰러진 날 지갑의 돈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나) ()가 할머니 사건을 정확히 본 게 맞느냐고 따져 물음.

(다) 재영이 할머니 옆에 있던 선배는 ()명인데, 가방이 ()개였던 것을 기억해 내고, 그중 한 가방에 달려 있던 인형을 ()의 가방에서 발견함.

(라) 선오가 () 선생님에게서 선배들이 할머니를 구한 게 아니라 쓰러진 할머니한테서 ()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옴.

(마) 상가에서 예서를 만나고, 예서와 함께 놀던 선배들이 쓰러진 할머니에게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짐.

사건을 조사한 과정 () - () - () - () - ()

사건의 실체

- 쓰러진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의 패딩을 뒤적거리던 손짓 →
 - 119가 금방 도착한다고 하던 말 →

| 독서 전 3차시 | 사건과 갈등 파악하며 읽기

1. ‘나은’과 다른 친구들이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일에 ‘재영’을 끌어들였을 때의 상황을 친한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말해 봅시다. 이때 재영이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를 1인칭 시점으로 말해 봅시다.

- 1-①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재영’을 어떻게 대한다고 생각하나요? 나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앞서 말한 내용으로 소설의 해당 부분을 바꾸어 써 봅시다.

- 1-② 재영이가 편의점을 지날 때 한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무인 편의점에서 나온이와 친구들의 편을 들었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김서준이 이야기했던, 내가 꼼수를 썼던 무인 편의점 앞을 지날 때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나은이와 다른 애들이 도둑으로 몰렸던 그 가게. 몰린 게 아니라, 실제로 도둑이었던 가게.

2. 다른 아이들은 재영의 능력(진실을 좋게 바꿔 말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래의 상황에서 추측할 수 있는 아이들의 속마음과,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재영이 느꼈을 속마음을 일기로 써 봅시다.

RC카에 분필 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닦아드리려고 했다, 먼지 날까 봐 복도에 나와서 텔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죄송하다… 이게 내가 떠올린 시나리오였다.

“아, 리모컨은 미리 가져다 놔야 돼. 리모컨까지 가지고 나왔으면 가지고 놀다 그런 게 티가 나잖아.”

“고마워, 서재영! 야, 너 진짜 꼼수 잘 쓴다. 덕분에 살 듯! 역시 꼼수 하면 서재영이지!”

김서준은 신이 나서 RC카에 바람을 흑흑 불어 댔다.

먼지가 날리고, 나는 명해졌다.

“내가 꼼수를 잘 써?”

아이들의 속마음	
재영의 일기	

3. 선한 목격담을 지어내던 재영에게 변화를 일으킨 사건을 표로 정리해 봅시다. 이 과정을 통해 재영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함께 써 봅시다.

	할머니 사건	유튜버 인터뷰	예서의 반성	결과
재영의 생각				→
현실				

3-① 앞의 표에서 재영이가 겪은 각각의 일들이 재영이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 할머니 사건

• 유튜버 인터뷰

• 예서의 반성

4. 재영이와 나은이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재영이의 대응 방식을 살펴 봅시다.

(가) 진심. 그런 게 중요하다고 믿던 때도 있었다.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시 돋친 말도 의도가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뒤집힌 건... 속마음이야 어떻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겠다고 결심한 건...

(나) 나는 좋았어. 아무렇지 않았어. 겉으로 볼 땐 그랬잖아. 그 애도, 나를 괴롭힌 게 아니야. 친구였어. 서로 충분히 잘해 주고 가까웠다고. 속마음이 어땠는지까지 파고들 필요 없어.

(다) 벼룩처럼 내가 쓴 '좋은' 글 페이지에 들어갔다. 댓글을 읽으면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라) 과자를 사 오면서 계속 생각했다. 이상한 거 아니야, 날 시킨 것도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사온다고 했잖아. 당연히 사 올 수 있지, 친구들이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중략) 그러나 돌아간 교실엔 아무도 없었다. 가방도 없었다.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내 가방만 그대로. 날 두고 갔구나. 나는, 친구도 아니었구나.

4-① 재영이가 (가)의 밑줄 친 부분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를 (나)를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4-② (라)의 상황 이후 재영이가 (다)와 같이 행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재영이의 ‘삭제하기’

예서가 할머니께 돈을 돌려드리고 난 후, 재영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동안 자신이 써 온 가짜 목격담을 모두 선택해 삭제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재영이의 행동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 이게 현실이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언제나 좋은 반응을 얻어 내지는 못한다. 그렇게 자판기처럼 원하는 답이 나오는 일은 없다. 상상 밖의 세계는 잔가지와 잔털이 훨씬 많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 그리고,

“저기요!”

어?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고맙습니다.”

나는 한참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버스를 두 대 더 보내고 나는 ‘편집’ 버튼을 눌러 내가 쓴 모든 글을 선택했다. 그리고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댔다.

내가 해 온 일이 모두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이렇게 해 봤으니 다르게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걸 해 보려면 하던 걸 멈추고 빈 공간으로만 들어 놓아야 한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5-① 재영이가 만들어 낸 좋은 이야기 속 세상에 비해 현실은 어떤 곳인가요?

5-② 재영이가 도움을 준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5- ③ 앞으로 다르게 해 보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 독서 후 4차시 | 적용하고 토론하기

재영이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 나은이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무마하거나 좋은 이야기로 덮는 편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를 따뜻하게 지켜주던 좋은 가짜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진실을 향하면서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단단한 껍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 사건은 할머니의 돈을 훔친 선배들의 이야기였고,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예서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 덜 아름답더라도 현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삶의 조건 안에도 아름답지 않은 부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얼굴 중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대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단지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재영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나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담과 나만의 세계 중에서 이제 그만 '삭제'해야 할 것은 없나요?

[활동 1] 다음 글을 읽은 뒤, 아래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각각 정리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해 한 편의 글로 써 봅시다. 의도와 결과가 좋다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하얀 거짓말이란 선의의 거짓말로도 불리며 남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뜻한다. 영화 <페어웰>에서 주인공 ‘빌리’는 할머니의 폐암 말기 소식을 듣게 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빌리네 집은 할머니에게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기로 하고 할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손녀인 빌리의 가짜 결혼식을 꾸미게 된다. 이 영화의 내용처럼 누군가를 위해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당사자를 빼고 주변 사람이 결정한 거짓에 속게 된다는 점에서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 있다.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될까?	
찬성	반대

[활동 2] 타인의 인정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 작성한 내용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유해 봅시다.

<예> 나를 만드는 나만의 삶의 기준 점검표(재영)

평가 내용	매우 그렇다——————매우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5	4	3	2	1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5	4	3	2	1
변명하거나 예두르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5	4	3	2	1

나를 만드는 나만의 삶의 기준 점검표

평가 내용	매우 그렇다——————매우 그렇지 않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또인돌

www.ddstone.com

또인돌출판(주) 10881 경기도 과주시 회동길 337-9

전화 (02)337-5252 | 팩스 (031)947-5868

또인돌 블로그 blog.naver.com/ddstone1994

또인돌 페이스북 www.facebook.com/ddstone1994

또인돌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dstone_books